

- 2025년 제3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회 의 록

□ 개 회

○ [간 사]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준복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25, 26년 청년 정책 신규 및 확대 사업 보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 공유 및 청년 정책 특강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으로 작성되고 공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 소개

○ [간 사]

다음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임정섭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김현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노자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최상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김현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손현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현솔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김동원 주택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한상무 경제산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공동위원장 인사말씀

○ [간 사]

그럼 먼저 김정훈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정훈입니다. 먼저 오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임정섭 부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느끼신 점과 바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정책 부서에서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용인의 청년들이 더 큰 꿈과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원보고

○ [간 사]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의거 위원 20명 중 11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정훈 공동위원장님께서 개의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3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 [김정훈 공동위원장]

다음은 25년 26년 청년 정책 신규 및 확대 사업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청년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정책팀장]

(PPT 자료 화면 설명)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팀장 최은정입니다. 25년 26년 청년정책 신규 및 확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25년 본예산 기준 5개 분야 73개 정책 320억에서 25년에 신규 추진된 사업과 추가된 사업 포함 8개 사업이 반영되어 81개

정책 약 324억 9천만원으로 약 4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신규 5개, 확대 2개 사업에 총 7개 사업 12억 5천만 원의 사업이 반영되어서 25년도 종료 사업 등을 제외하고 84개 정책 총 335억 9천만원의 청년 정책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PPT가 조금 멀어서 자리에 놓여 있는 PPT 자료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신규 및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총 15개 사업 22억 5500만원의 사업이 신규 또는 확대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25년 신규 및 추가 사업은 8개 사업 10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26년 신규 및 확대 사업은 7개 사업 12억 5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11억 4천이 포함된 복지문화 분야, 라이즈 사업 5억이 포함된 교육 분야, 또 대학연극제 2억 5천만원 반영된 참여권리 분야, 또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4천 2백만원의 주거 분야, 또 AI 활용 취업 역량 강화 천만 원이 반영된 일자리 분야 순의 규모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15개 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사전에 보내드린 회의 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간추려 목록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신규 및 추가 사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신규 사업은 5개 사업 5억 4천만원으로 대학의 지역 수요 기반 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 발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라이즈 사업 이 사업은 관내 8개 대학에서 4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컨소시엄별 인재 양성, 취창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정주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25년부터 연 105억 3천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되며 시비는 26년부터 연 5억2천 6백5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앙동 지역 청년창업 지원교육 및 용인중앙시장 솟품 공모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용인 청년 디지털 브랜딩 프로젝트 사업 또 자립 준비 청년들의 개인별 1대1 맞춤형 사례 관리를 통해 살림 물품 이사비, 운전 연수 등 최대 200만 원까지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또 관내 대학 청년랩 축제 현장 등 청년 정책을 홍보하고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 정책 홍보 유스 팝업, 청년 참여형 제안을 통해 용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숙의 공론장을 운영하는 용인 미래 정책 제안 공모전 운영 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었으나 25년 당초 시행 계획 시에 빠져 있던 청년 사업 중에 25년도에 추가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추가 사업은 3개 사업 4억6천5백만원으로 복지 문화 분야에서 청년 참여 확대 문화예술 공모 사업과 수험생 힐링콘서트 등 2개 사업과 또 대한민국 대학 연극제 1개가 추가되어 총 3개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참여 확대 문화예술 공모 사업은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 사업 내 청년의 참여 비율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서 공연비, 대관료, 홍보비, 출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한민국 대학 연극제는 전국 최대 유일 컨셉의 체류형 대학 연극제로 올해는 전국 12개 대학 총 8천8백만원의 사상 규모로 체류 프로그램 팔로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관내 3개 공연장에서 대학생들이 기획 연출한 연극 시연 및 경연이 펼쳐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년 신규 확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 신규 사업은 5개 사업 8천만원으로 인공지능 기반 자기소개서 코칭, 모의 면접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활용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주거 이동이 잦은 청년들에게 중개 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용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특히 우리 시에서는 용인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까지 청년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으로 이어지는 주거 점프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24년 청년 정책 네트워크 제안 사업이자 25년도 주민 참여 예산 제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관내 반도체 기업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 맞춤형 교육,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교육과 반도체 산업단지 현장 방문 교육 등의 용인 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신입사원 통합 교육 사업 또 전국 최초 지역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특화 예금 상품을 제공하여서 관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용인형 청년 예금 사업 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네트워크 제안 대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채택한 사업인 용인 청정대학체전 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년도에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 확대된 사업으로는 복지문화 분야에서 2개 사업 11억 7천만원으로 문화예술 패스 사업과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공연 전시 등 청년 대상 문화예술 관람료 연간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19세에서 20세까지 연령이 확대되었고 또 영화 관람까지 이용 가능 분야가 확대됩니다.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 사업은 1인 5만원 한도로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 비용을 지원해서 청년의 구직 활동과 자기 계발을 독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된 사업으로 작년에 어도비에 이어 챗gpt까지 지원 항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5년 26년 청년 정책 신규 및 확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발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 [임정섭 부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임정섭입니다. 먼저 지난 9월 청년 페스티벌 준비하시느라고 청년정책과가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청년 기획 공연부터 시작해서 거의 주 52시간을 넘기시지 않았을까 걱정되는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궁금했던게 지금 신규나 추가 확대 사업도 있지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 관련 사업들이 좀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처음 올해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대상 고립 은둔 측면의 대상을 발굴해내고 이제 연락을 하고 이렇게 다가가고 접근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이 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년복지 팀장]**

안녕하세요. 청년복지팀장 윤민영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작년 24년 10월에 용인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3월에는 중앙에 있는 청년재단과 사회적 고립 청년 등 취약 청년에 대한 업무 협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또래 활동가를 양성을 했고요.

그래서 한 저희가 한 두 달에 걸쳐서 양성 교육을 해서 양성자를 또래 활동가 12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동행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현재 19명을 매칭해서 오프라인 모임 10회 정도를 진행했고요.

지금 또 오프라인 모임이 끝난 친구들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5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1월 다음 주부터는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또 이 관심 있는 그런 지역사회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 교육을 3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올해 한 해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저희 실태 조사를 또 진행을 했거든요.

실태조사 결과라든지 또 내년도에 우리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약간 의견을 듣는 그런 토크 콘서트도 12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임정섭 부위원장]**

예 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사회적 활동가 사회적 거리 없는 청년 활동 교육을 저도 들었는데요.

보니까 청년들만 활동가 교육을 듣지 않고 가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가족들한테도 참 필요한 교육이구나 했는데 또 가족 교육을 이미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 사회적 고립 분들 청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성과가 많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제 3년 이상 최소 3년 이상부터 돼야지 이제 고립 청년이나 이런 청년들이 이제 좀 밖으로 나와서 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어 있고 의견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이 사업들이 성과가 초기에는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확장되고 조금 이렇게 지원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무 경제산업국장]

12페이지에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24년보다 25년에는 발급 인원이 더 줄고요.

또 이용률 또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내년 부터는 영화가 추가가 됐는데 좀 많이 홍보해 주셔서 많이 발급받고 또 이용을 많이 해 주실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니 답변까지 필요 없고 그냥 부탁드립니다.

○ [손현수 위원]

손현수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청년 지원 정책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개선된 것 같아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청년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지원 관련해서 챗gpt를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역할에 따라서 좀 다양한 AI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 제미니(Gemini)나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독 지원 하는 걸 좀 검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용인 청정 대학 체전 관련해서는 이게 체육이다 보니까 좀 대학 리그나 좀 시도 체육회와도 연계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답변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최상국 위원]

네 안녕하세요. 산업진흥원 최상국입니다. 일단 신규나 확대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은 없고 저희가 산업진흥원이다 보니까 이제 기관 특성상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구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청년 정책에서도 어쨌든 소득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청년이 정주 여건이나 문화 예술 이외에도 어느 정도 소득 기반이 마련돼야

이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가 있을 텐데 기업에서 구인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들을 좀 천천히 들어보니까 일단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 대다수가 성남이나 서울 쪽으로 취업을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용인에 있는 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기업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소득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기업에서 실제 현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용인시의 산단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교통망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로망도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산단이죠.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덕성 산단 같은 경우에도 자가용이 없을 경우에는 출퇴근이 좀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차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이제 돈이 많이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업에서 뭔가 본인들이 재직할 수 있는 활동을 잘 지원해 주려면 대중교통도 조금 많이 확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노자은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말씀하면 그 분야 사업별로 좀 중복적인 성격이 있는 것들을 연계를 좀 밀접하게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 권리 분야에서 5-1 청년 정책 제안 사업 추진과 5-4 용인 미래 정책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부서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담당자분들을 미팅하고 좀 알게 되었는데 이 두 가지가 꼭 합칠 필요는 없어도 두 개가 좀 밀접하게 연계되면 좋겠다.

그 방법은 제가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고민을 안 해봤지만 좀 밀접하게 연계돼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것들이 좀 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옥 교육청년여성국장]

네 우리 노자은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페이지에 그렇다면 그 두 가지도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14페이지에 문화예술 공모 사업과 관련 해서도 지금 보면 청년 예술인 분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많이 의견들을 주시고 문화예술과에서 잘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청년정책과에도 좀 이렇게 담겨서 우리 네트워크 위원님들이나 청년 예술인들이 한 꼭지로 좀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신 일들 보면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용인시 청년분들 페스티벌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함께하고 모든 것이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 제안도 하고 그것이 이렇게 과정 과정 소통하는 내용 중에서 담기는 것들이 너무 고무적이라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지금 눈에 확 띄는 사업이 비예산 사업으로 11페이지에 용인형 청년 예금 출시하는거 사실 청년정책과에서 내년도에 야심차게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담당 국이지만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청년복지 팀장]

청년복지팀장 윤민영입니다. 우선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형 청년 적금은 만기 이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좀 미비한 편입니다.

또 취업난과 생활비 가중으로 인해서 3년 이상의 장기 적금은 중도 해지율이 높아서 실질적인 자산 형성의 효과는 좀 미비한데요.

예를 들어서 25년 7월 기준 전체 가입자의 한 15.9%가 중도를 해지했고 10만 원 미만은 거의 40% 정도가 중도 해지한 만큼 좀 청년들이 그런 장기 적금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장병 내일 적금이나 청년 희망적금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같은 현재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적금에 대해서 이 이후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모아서 목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 저희가 고민하다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과 한번 협의해서 현재 정기 예탁 금리 외에도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해서 조금 청년들한테 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구체적인 대상 인원이라든지 가입 한도나 5대 금리 정도는 현재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간 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금은 예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청년정책과에서는 재테크에 대한 분산 투자라든지 이렇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반이나 교육들이 병행이 돼서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지역의 금융권이 같이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적금을 조금 더 길게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요.

적금이 만기된 후에 일부 분산 투자를 하는 예금의 목적으로서 지역 금융권에서도 흔쾌히 참여를 같이 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천 명 규모로 시작한 한번 해보는데 그거는 참여 금융권의 숫자에 따라서 목표량은 조금 달라질 거는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첫 해여서 일단은 우대 금리 쪽으로 시작은 되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나 전략들이 같이 나올 거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손현수 위원]

굉장히 저도 한 말씀만 더 듣고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많은데 특히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원하는 정책들도 굉장히 좋은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은 청년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지원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현재 웰니스나 스포츠 산업이 각광받고 청년들의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반영을 해서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 [임정섭 부위원장]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올해 이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안 대회 18건 굉장히 많이 제안이 나왔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반영 일부 반영하면 6개 굉장히 많이 반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청년들과 또 우리 용인시와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도 지난해에 제안대회에 첫 입문을 시작해서 두 번째 했는데 점점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관련 담당 부서 공무원 분들께서 같이 참여 하셔서 그리고 또 협업 기관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같이 참여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나 안 될 것 같은 거는 사전에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가능성이 있고 반영되기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더 반영이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사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아카데미 준비하고 멘토 제도 해서 긴 호흡으로 준비하는 게 어려우셨을 텐데도 이게 잘 되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제안 대회의 취지는 원래 발표하면서 이런 제안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듣는 건데 그게 이제 약간 뭐랄까요? 속의 토론장이랑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그날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내년에 가면은 왜냐하면 발표하는 자리인데 갑자기 이미 완성된 거에 대해서 약간 디베이트가 되는 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짧은 시간에 준비하는 게 매우 어렵겠지만 내년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조금 더 그전에 네트워크 위원들끼리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보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 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제안 대회 때는 정말 발표 그리고 외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조금 더 우리만의 얘기보다는 우리만의 얘기는 청년들 정책 대회 전에 우리만의 얘기를 마무리하고 대회 때는 대외적인 거니까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좀 더 그 대회가 풍성하고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고 참여한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네 저 또한 궁금 사항과 건의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3-3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 신입사원 통합 교육에 지금 우리 26년도에 이제 연 1회성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25년 7월 중에 이 과정으로 이미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5개 반도체 기업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이 꽤 궁금하고 만약에 대상이 중소기업이다 그렇다면 하시면 좀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는 신입사원 교육이 미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하는데 있어서 또 용인에 있는 청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반기별로 해서 이제 신입사원들이 생기는 그런 반기 1회 이렇게 해서 연 2회 정도로 좀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 [박상욱 반도체인재양성 팀장]

반도체인재양성팀장 박상욱입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청년정책과랑 협업해서 한번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용인시 반도체는 대부분 중견기업 포함해서 중소기업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SK가 이제 입주할 예정이지만 현재 중소기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직률이 당초에 좀 높아서 그 이직률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요.

일단 저희도 상하반기로 이렇게 교육을 좀 다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좀 규모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보내는 거에 대한 어떤 영업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작업의 생산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다 이런 또 현장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 사업을 하고 그 반응을 한번 더 보고 각 기업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입사원들도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인원이 좀 적은데 횟수는 좀 적은데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자은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라이즈 사업 교육 3-1 사업인데요.

라이즈 사업이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기도 국도비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용인시 청년 정책 사업으로 또 또다시 한 번 포장해 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이 청년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고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포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포장이라는 말을 나쁘게 쓰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25년에서 26년으로 교육 분야가 많이 늘었길래 어떤 흐름이었을까 했을 때 이 라이즈 사업 예산이 추가되면서 좀 그 비중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실질적으로 용인시 청년에게 이렇게 어떤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준비가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 [미래성장전략과 고은미 주무관]

네 안녕하세요. 미래 성장 전략과 라이즈 사업 담당자 고은미입니다. 사실은 라이즈 사업이 청년 대상으로 특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 사업 성격이 좀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 성격 자체가 다양한 분야를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회의를 오라는 부서의 연락을 받고서 많은 라이즈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하면은 이제 총 8개 대학이 참여를 하지만 하고 있는 영역이 크게 지역 산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인재 양성 교육 부분 그리고 평생 교육이나 지역 현안 사업들 이렇게 지금 다양한 분야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딱 저희 여기서 얘기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들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을 사실은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첫 번째는 해당 대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들이 기존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과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 산업의 기업 기반으로 수요가 있는 융복합 교육 과정이나 취창업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역 산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라이즈 사업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내 기업 재직자들에게 대학들이 또 교육도 실시합니다. 대학에서 벗어나서 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교육들을 대학 쪽에서 이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외국어 저희가 한국 외국어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학 쪽에서 좀 강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어학 부분이라든가 글로벌 인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할 예정이고 경희대에서는 신산업 분야에 맞춰서 AI 역량 강화 그다음에 AI 빅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기업 재직자들에게 이제 교육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평생교육 쪽이 대학생들을 벗어나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전 연령 층에게 교육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기존에 평생 교육이 성인들의 취미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추진이 되고 있었다면 조금 직업 교육 쪽으로 대학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저희 청년 계층에게도 여러 가지 조금 더 다양한 직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직종 전환에 필요한 것들 자격증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진 위원]

제가 덧붙여서 라이즈 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라이즈 산업이 지금 예산이 엄청나요 국도비 포함해서 100억 용인시에서도 5억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용인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홍보나 안내하는 기능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각 컨소시엄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용인시에서 참여한다는 게 거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청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큰 만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노력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자은 위원]

저희가 5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매해 평가하고 그다음에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실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혜 혜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나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은미 주무관]

네 저희가 우선 라이즈 사업이 하나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도에서 사실은 공모를 진행하고 대학들이 지원해서 선정돼서 경기도에서는 애초에 경기도 라이즈 센터라고 해서 경기도 과학진흥원에서 전문 수행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저희 기관에 비교하면 한 과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사실 이게 광역 중심이기 때문에 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용인시에 관련된 것들을 함께 협업해 가느냐 사실 요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라이즈 사업이 사실은 이게 기존에 없던 사업 추진 체계예요.

교육부에서 기존에 일반적으로만 대학이 수행하던 이 교육에서 벗어나서 지역과 협업해서 지역 수요에 맞춰서 인재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대학이 발전하라고 하는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사실 진행되는 사업이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올해 사실은 처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성과나 관리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일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별다른 효과 없이 재정만 투입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도 그거를 염려를 하고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대학들과 협의하고 그 결과나 또 잘못된 것에서 피드백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조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진 위원]

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청년 지원 사업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산업계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은 외부의 청년들이 용인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용인에 참 우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취업을 했을 때 정주할 수 있는 좀 여건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거 물론 도시공사나 경기도공사 같은 데서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 주택국장님이 와 계시지만은 용인시 차원에서 용인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임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간 사]

저희가 아까 서두에 저희 정책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현금성 지원과 그렇게 아예 거처를 마련해 주는 지원 이런 식으로 두 군데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하거나 개발을 할 때 특별 분양 쪽으로 청년 쪽에 배정을 더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주의식이나 거주 여건이 좋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2040 도시 계획을 지금 한창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인구의 개발이 예고는 돼 있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러려면 어쨌든 산업이 개발되고 나면 당연히 주거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거의 청년 특별 분양 중에 청년 계층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이랑도 오늘도 건의를 하고 오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확보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기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2040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소개를 못 시켜드렸는데 저희 박예지 위원님 소개 먼저 시켜드리고 질문받겠습니다.

○ [박예지 위원]

네 안녕하세요 늦게 와서 박예지라고 합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의견이나 이런 거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너무 많이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많은 활동을 참여하면서 담당하신 직원분들 되게 많이 뵈고는 하는데 사실 그 고생스러움과 수고스러움은 굉장히 옆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라서 저도 그 고생스러운 거 수고스러움이 많이 느껴지던 한 해 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견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4-6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요. 일단은 저는 대학원생이고요.

단국대 가족상담학과에 올해 이제 입학할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자립 준비 일을 준비하거나 혹은 사회적 고립 측면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가족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실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고립을 근데 그게 사실 전문가의 개입도 필요하지만 사실 비용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반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사실 실습을 해야 되는 여건들이 있는데 사실 실습을 하면 비용을 받지 않고 해야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 사실상 원원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대학원생들도 이 고립 청년 지원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으셨지만 사실 지원할 때 가로막히신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대학원생들은 사실 자치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가로막히신 적도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를 좀 다섯 기수 해오면서 느꼈던 생각인데요. 사실 중간 공유회 이후에 좀 아니면 한 기수가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건데 어떤 제안을 하고 나서의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큼니다.

사실 네트워크가 한 제안이 반영되는 건 너무 좋고 제가 제안했던 것도 반영이 되는 것도 사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 이후에 후속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네트워크와 함께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은요 4-1에서 예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연중 상시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끊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단순한 질문입니다.
네 그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 [간 사]

연중 수시로 진행되는 건데요. 어차피 어쨌든 우대 금리를 주게 되면 우대금리 안에 예산 부분을 지역 금융권에서 지금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제한으로 인원을 받을 수는 없고 한 기관당 200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명이 다 차면 그 해에는 사실은 이제 예금이 마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더 의견 주실 위원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발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은 해당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청년 참여 기구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 활동과 청년 정책 특강을 통해 위원님들과 청년 정책 공유 및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장이신 손현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용인 정책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한 분 더 소개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그린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이그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지금 끝에서 앉아서...

○ [김정훈 공동위원장]

네 박수로 손현수 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 **용인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사항 공유**

○ [손현수 위원]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청년 정책 네트워크 5기 위원장 손현수라고 합니다.

저희 용인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용인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의거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된 청년 단체입니다.

최초로는 2020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2025년도에 제5기를 맞이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 분과로는 도시재생, 참여권리, 홍보, 문화복지, 주거교육, 취창업 이렇게 총 6개의 분과로 7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정책 제안대회와 청년 페스티벌로 크게 이렇게 주요 활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 정책 제안대회는 청년들이 용인 시정이나 현안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개선점을 발굴해서 정책으로 발표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분과에서 18개의 제안을 하였고요.

도시재생 1건, 참여권리 1건, 홍보 3건, 문화복지 2건, 주거교육 8건, 취창업 3건으로 이렇게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이렇게 5건의 정책이 있는데요.

뒤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인 청년 페스티벌은 청년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하는 활동인데요.

청년들이 부스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페스티벌 영상 제작 및 홍보 축제 부스 및 현장 지원 이런 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이렇게 청년들이 축제와 네트워크의 장을 이제 만듦으로써 이제 청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 제안 대회의 성과인데요. 반영 5건과 일부 반영 한 건 그다음에 미반영 8건, 장기 검토 4건으로 해서 총 18개의 제안이 나왔고요.

이 중에서 이제 반영된 대표적인 5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도시재생에서는 용인 중앙시장 앱 인식 확산을 위한 솟품 사연 공모전이라는 정책을 제안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중앙시장 및 도시재생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취창업 분과에서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지원 사업 품목 확대라는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취창업에서 IT 스타트업 대표분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를 통해서 현재 AI 사업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청년랩 기자단을 활용한 청년 취업 및 창업 정책 제안 홍보 방안이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홍보에서는 대학 연계 청년 정책 홍보 프로그램 와이유 폴림 픽스(YU-Polympics)라는 정책을 제안하였는데요.

청년들이 특히 대학생들이 문화 교류장을 만듦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홍보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동시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주거 교육 분과에서는 이제 제가 소속된 분과이기도 한데요. 취약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용인시 맞춤형 주거 금융 교육 지원 방안이라는 정책 제안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요새 전세 사기나 아니면 코인 사기 금융에 좀 이런 부분들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런 청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제 주거 교육 분과의 정책 제안과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 공유드릴 활동으로는 이번 5기 청년정책 네트워크 5기에서 시행했던 청년 정책 아카데미인데요.

청년들이 단순히 그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거에 넘어서 청년들이 학습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활동이 청년 정책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강의와 멘토링 그다음에 그룹별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총 3차시로 해서 청년 정책 이해 그다음에 청년 정책 살펴보기 그다음에 제안서 작성하기라는 세 단계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여서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를 제안 대회 전에 프로그램을 배치를 함으로써 청년들이 좀 더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제안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기 회의인데요.

매월 1회 이상 분과 회의와 이제 사무국 상임위원회 정례 회의를 병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시정이나 현안에 대해서 서로 목소리와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제안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청년 창업과 네트워킹과 같이 청년들이 이제 서로 모여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네트워크가 점점 더 확대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용인시의 우수한 인적 자원인 청년들의 인적 자원이 좀 더 구축되고 강화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정훈 공동위원장]

네 손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우리시의 청년분들께서 좀 다양한 제안들을 좀 열정적으로 내시는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좀 더 이 활동이 좀 더 강화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신 노자은 박사님을 모시고 국내 청년 연구 동향 및 용인시 적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 특강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노자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 청년정책 특강(용인시정연구원)

○ [용인시정연구원 노자은 박사]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렇게 짝 계실 때 강의를 살짝 강의를 보면서 조율을 했거든요.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야겠다. 정보를 청년에 대한 어떤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아실 분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무관님께 속아서 작년 업데이트 조금만 해 주세요 했는데 작년에 들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살짝 모르는 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용인시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자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취지는 용인시 일반적인 청년 관련된 현안들을 좀 같이 짚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인 만큼 연구 분야에서 청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청년 분야들이 어떤 비중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청년문화 연구들이 어떤 비중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용인시에서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용인시 청년 이것만 업데이트를 좀 해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용인시 청년 비율이 전국과 동일한 18.3% 전체 인구 대비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좀 비교해 봤더니 조금 낮아졌더라고요.

인구 수가 줄어드는 거는 좀 당연한 부분이라 그런데 이것도 유사한 규모 지자체를 저희는 항상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이런 정도로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청년 인구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수원에는 22.7%이고 용인이 18.3%로 가장 낮고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여기 없군요.

화성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중심으로 전국을 기준으로 용인 청년 인구를 좀 봤는데요.

전국 내에 경기도에 사는 청년들은 27.8%입니다.

전국 청년 중에 용인에는 2.1% 정도가 있습니다.

수원은 2.9%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중에 이제 경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용인시에는 7.7%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10.4% 정도 있습니다. 익숙하신 그 지도이실 텐데 이게 한 10년 정도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서 24년 9월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진해질수록 청년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보시면 이동읍에 남사읍 이동읍 이쪽 부분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신기했던 건 제가 이제 청소년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중기 청소년 초기 청소년 그러니까 초기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초등 연령 청소년들을 얘기하는데 엄청 많아졌거든요. 유입이 그러니까 약간 이걸 청년 연령을 이렇게 넓게 잡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또 청년 인구를 좀 쪼개서 보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삼가동 역삼동이었을 때와 삼가동 역북동으로 나뉘었을 때 또 인구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 게 좀 보이시죠?

이건 아무래도 대학 중심의 그런 지역들이 역북동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경향들도 좀 있고요.

또 독특한 변화가 혹시 보이시나요? 관심 있으신 지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인구는 전체적으로 10년간 증가했습니다. 청년들이 좀 유입이 많이 된 상태고 기흥과 수지구는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제 청년 정책 이거 이거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인데 모른 척해 주세요. 들으신 분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구 분야에 관련된 그 시점 차이라든지 분야별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그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청년 정책 연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연구 기관 자체에서 하는 연구들은 조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용인시에도 지금 올해만 해도 청년 연구가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정책 연구하는 그 경향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앙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는게 수립이 되고 자원이 지방에서 지방에 뿌려지고 또 지방에서도 만들어내잖아요.

청년 정책에 투입하는 자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입된 자원이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자체가 연구하고 실증하고 하는 것들이 좀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고 요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지자체는 중앙 정부의 청년 정책 동향을 안 볼 수가 없다.

자원이 어디로 몰리고 또 전년 대비 또 다른 분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연구들은 청년 고용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요.

연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육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태 이 박사님들이 21년에 청년 정책 연구에 대해서 군집 분석을 한 결과 주제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사회 일자리 이주 약간 사회학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진로지원, 능력개발, 자산 형성 이런 역량 관련된 부분들 세 번째는 사회 갈등 해소라든지 문화, 건강, 안전, 노동시장 미스 매치 약간 사회 갈등 부분 문제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제 협력 노동 시장 변화 약간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분석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일자리 연구가 비중이 가장 높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아까 우리 상공회의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약간 지표로 결과적인 지표로 설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책 분석하는 연구 정책 평가하는 연구에서도 얼마나 취업을 했는가 얼마나 고용이 안정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 그리고 참여권리 관련된 비중 연구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 반가운 경향이고요.

주거 관련해서도 이제 연구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흐름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일자리 분야 청년 정책 연구 발주 기관의 분석인데 02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시면 점점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 보라색 부분이 중앙 부처고 연두색 부분이 초록색 부분이 중앙 나아가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연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자원이 일자리 관련된 정책 자원이 지방에 이제 마련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주거 분야 정책 연구인데요.

02년 이전부터 해가지고 거의 없다가 이제 청년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 볼 때 고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기반 자체 이런 부분을 주거에서도 좀 찾으려는 노력이 반영이 된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교육 분야는 02년 이전에는 오히려 많았다가 지금 이제 좀 적어지는 편인데요.

아까 그래서 제가 예산이 좀 특이했던 거예요. 26년에 우리는 교육이 늘었네 라고 좀 이제 그게 보였던 건데 교육 부분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인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효과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 연구로 풀어가기보다는 어떤 기본적인 정책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 문화 분야는 중앙부처보다는 훨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분석 노력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권리 분야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의 연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그 참여 기구에 관련된 것도 기본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먼저 좀 본 경향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그 연구를 발주하는 흐름들이 또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약간의 텀을 두고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그러면 청년 정책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올해 업데이트가 된 부분인데요.

용인시정연구원이 개원 2019년에 했고 그리고 올해 수행 중인 연구 포함해서 총 10건의 청년 정책 연구가 수행이 완료됐고 그리고 수행 중입니다.

2019년부터 25년까지고요. 작년 그러니까 24년 25년 저렇게 보시면 저희 연구 청년 정책 연구에 얼마나 연구원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년 당시는 담당관 청년 담당관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과에서도 이렇게 많이 의뢰를 해 주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는 것은 저는 이번 여기 용인시에서 일하게 되면서 좀 느낀 부분이고 그리고 주거 일자리 지역 활성화 복지 정책 종합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분야를 나눠보면 저렇게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던 고립에 관련된 것도 2년 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이 1년에 한 45건 정도의 한 40 45건 요 정도의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매해 저렇게 3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비중이 또 높다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재미있는 연구를 했었던 거 아마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명지대학교 건축학부생들이 직접 참여한 연구가 2019년에 있었고 이렇게 좀 대학로라는 것을 이 거리를 어떻게 청년 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건축학부 친구들이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연구 결과로 실었던 연구가 있었고요.

1인 가구에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연구에서는 그냥 주거 환경뿐만이 아니라 아래에 보시면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회 참여라든지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거 형태 자체가 아니라 주거 환경 전체로 1인이어도 뭔가 고립되지 않고 연결되고 계속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같이 종합적으로 녹여져 있다는 것이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21년에는 지역 대학과 산업단지 연계한 고용 개선 방안 연구, 22년에는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 전체적으로 점차 활성화 방향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이제는 22년 이후부터는 약간 분야별 집중되는 연구들이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방안과 취업 활성화 방안 연구가 24년에 있었고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인포그래픽으로 또 재미있게 청년 인식을 좀 비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한 고소득보다 삶의 균형을 중시한다 이런 부분들도 연구에 좀 담겨져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에 청년주택 공급에 있어서 모델 3개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내가 저렴하게 주택을 좀 살 수 있는 청년 입장에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주거 안정 지원 그리고 그냥 단순한 주거 지역이 아니라 창작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그런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 교류 연결되는 그런 주택 모델 해가지고 세 가지 모델을 적용한 연구고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 청년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가 이때 작년에 첫 번째로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조금 실태를 정량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무엇이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좀 기초적으로 검토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채널 구축이라든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약간 검토하는 연구라고 하면 올해는 이제 저희가 실태조사 아까 우리 복지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와 그리고 이제 용인시 특화된 정책들 그런 제안하는 연구가 11월 말 종료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년 삶에서 이렇게 쪽 봤을 때 우리 용인시에는 그럼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가 청년 삶의 주요 분야들 아까 우리 페이퍼 보신 것처럼 분야별로 예산 사실 예산으로 돈의 크기로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좀 알맞은 건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가 없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가가 약간 관심도를 좀 보여주는 거 같아요. 시행 계획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이라는 걸 3개년을 좀 분석하니까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좀 미약하구나도 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균형적인 어쨌든 집중해야 되는 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야의 균형적인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편중 정도를 항상 면밀하게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용인형 청년정책 용인형 붙이는 거 되게 되게 무서운데 항상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죠.

용인형 청년 정책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청년 정책 저는 이제 청소년 정책도 이제 청소년 정책으로 시작한 사람인데 청년 정책에 많은 부분이 청소년 정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뭔가를 분류하고 할 때 꼭 중앙 정부 분류를 따르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용인형을 만들어 놓고도 이게 중앙 정부랑 어떻게 연결 되고 이거를 찾느라고 좀 강조가 덜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분류 체계를 좀 갖추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청년 생애 주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방금 청소년 정책 말씀드렸는데 성평등 가족부가 이제 또 여성가족부가 바뀌었고 빠르게는 저는 이제 최근에 시흥시 연구자들 시흥시청 관계자들 이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벌써 부서 명칭을 바꾸더라고요.

성평등 가족부를 따서 과 명칭을 바꾸고 청소년 담당 부서와 청년 담당 부서를 합치고 그러니까 같이 국과 안에 두고 그리고 중간에 기획팀 성격의 부서를 둬으로써 통합 지원 체계 통합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만드는 노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재단이라는 것이 출연 기관 성격으로 많은 지자체에 있는데 청소년 재단들이 청소년 청년 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요.

청소년 공간들이 법정 기준에 의해서 문화의 집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청소년 청년센터 또는 필요에 따라서 청년센터라고 직관적으로 법적 명칭을 버리고 좀 만드는 중이에요.

기존의 청소년 인프라들을 조금 청년 생애 주기를 생각하면 청소년기 잘 보내서 또 청년기를 맞이하고 약간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 좀 생애 주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우리 용인시에도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많은 사업들이 사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청소년 미래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의 성과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내고 있는 성과랑 많이 또 겹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이원화되고 벽을 세우기보다는 좀 통합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 사업 우리 청년정책과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부분들 많은데 잘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들 좀 부지런히 찾으시고 좀 계속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지난달에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해서 만드는 청년 패널 조사 대회에 다녀왔어요.

서울에는 청년 패널을 21년부터 만들어서 매해 5천명을 추적 조사합니다.

서울시가 또 이제 출연 예산을 출연해서 만드는 부분이고 제가 가서 느낀 건 페럼타워에서 한 대회였는데 위성 데이터라는 것도 위성 패널이라는 것도 별도로 마련했어요.

뭐냐면 서울시의 특성상 청년기에 잠깐 와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본 패널은 5천명 정도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사람을 매해 추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성 패널이라는 건 그렇게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패널을 별도로 구축을 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서울시처럼 큰 도시도 이렇게 패널을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하는게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용인시가 계속 청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용인시의 어떤 산업 발전이라든지 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 주축이 되는 청년 세대에 대한 용인시만의 고유한 데이터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하면 서울 청년 패널 데이터에서 봤던 건 전국 각지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우리 용인시의 어떤 청년 인구의 삶이라든지 청년 세대의 삶이라든지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들이대는 그런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용인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말고 다른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용인시에서도 한번 욕심 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홍보인데요. 저희 다음 주 18일에 용인시의 청년 감도를 논하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용인시 청년과 그리고 용인시정연구원의 청년 정책 연구진들의 간담회를 합니다.

그 사이에 스몰데이즈 설재우 대표라고 서촌 라이프 발행인 이기도 하고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하고 그런 콘텐츠를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특강과 함께 청년 정책 연구진과 실제 청년 당사자들이 정책 수요 같이 보고 의논하고 그런 자리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저 시간에 시간을 조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일도 하시는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 시간에 운영을 하게 됐고 신청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받으려고 해요.

청년 친화도시 연구도 있고 고립 연구도 있고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연구도 있어서 분야별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매칭을 해가지고 구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말 동안 조금 알려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

○ **[김정훈 공동위원장]**

노자은 박사님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발표 통해서 용인시정연구원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현황도 심도 있게 알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13명 : 김정훈공동위원장, 임정섭부위원장, 이기옥위원, 한상무위원, 김동원위원, 김현진위원, 노자은위원, 최상국위원, 이그린위원, 김현기위원, 박예지 위원, 손현수위원, 현솔비위원